

## 대학원생 상담에서의 당혹스런 경험

김준성\*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담을 받는 대학원생에게 필자가 자주 묻는 질문이다. 대학원생은 필자가 자신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워한다. 반면, 필자는 지성의 구도자인 대학원생에게 그런 단순한 질문을 한다는 생각에 당혹스럽다. 인내심을 가진 대학원생은 성심껏 답변을 주고 필자는 비로소 그 내용을 이해한다. 필자는 대학원생에게 그 부분을 방금 말한 내용과 비교하라고 요청한다. 성실한 대학원생은 말한 내용과 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다시 당혹스러워 한다.

“독자가 이 서론을 읽은 후에 나머지 내용을 모두 읽을까요?” 필자가 상담자에게 자주 묻는 또 다른 질문이다. 필자의 이런 무례한 질문에 상담자는 다소 멧쩍은 표정을 보인다. 필자는 무례한 질문을 하였다든 자책감에 당혹스럽고 대학원생은 질문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당혹스러워한다. 필자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논문의 서론을 읽고 별 흥미를 못 느끼면 더 이상 그 논문을 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논문은 서고에 보존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상담자는 한번 더 당황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상담자가 서술한 내용을 가리키며 불손한 질문을 한다. “이 부분은 번역인가요?” 대학원생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가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자는 그런 불손한 질문을 한다. 상담자는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였다고 대답하면서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 대학원생은 내심 당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선임연구원

혹스러웠을 것이지만 그런 상담자의 응답은 필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필자는 이런 당혹스런 사실들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글쓰기이다. 물론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하는 선생님들을 매우 중요한 독자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그 논문의 독자라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발표된 모든 논문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출판물이다. 출판물의 저자가 자신의 출판물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은 분명하다. 책임이 큰 만큼 자신의 논문을 소중히 여기면서 논문을 쓰고 고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태도는 학위논문을 쓰거나 학위를 마친 후 갑자기 갖춰지지 않는다. 그 태도는 짧은 학부 과정의 리포트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갖춰져야 한다. 매번 주어지는 리포트나 기말 페이지를 단순히 성적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결과물이란 생각으로 준비해야 한다. 교과 과정과 학위 과정에서 쓰는 모든 글을 단지 통과 의례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독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자신의 글에 책임과 자부심을 갖기는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연관되는데 기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글쓰기이다. 논문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논문 통과라는 기대 효과를 염두에 둔다. 그런 기대 효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정말로 고려해야 하는 기대 효과는 그 논문에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주는 것이다. 기대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글쓴이에게 글을 쓰는 당위성이나 동기 그리고 글을 쓰는 재미를 준다. 글쓰기가 힘든 과정이지만 단지 힘들기만 하다면 글쓰기는 무의미하다. 자신의 글이 독자를 설득시키거나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전달하는 기대 효과를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글쓰기의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당위성이나 동기 그리고 재미는 저자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하며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글의 양에 집착하는 글쓰기이다. 양에 집착하는 글쓰기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직접·간접 인용을 통

하여 자신이 검토한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소개하거나, 더 많은 또는 새로운 자료를 찾고, 자료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휩쓸리는 경우이다. 필자는 학술적인 글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절대 양은 없다고 생각한다. 학술적인 글의 생명은 새로운 아이디어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여 독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독자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들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피드백을 통하여 반복되는 수정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다른 텍스트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여 나의 생각으로 풀어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가 전체되어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분명하고 확고해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텍스트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여 풀어 쓸 수 있다. 셋째, 표절의 범위나 글의 진실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어로 쓰인 문헌과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원저자가 가진 생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먼저 자신이 이 위험을 염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방법이 일반화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까지 담당 선생님의 피드백이 주어진 리포트를 돌려 받았는지 궁금하다. 또한 표절에 대한 지적을 받은 학부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피드백이 없는 글쓰기, 표절에 관대한 글쓰기가 일반화된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개된 방법들은 무의미하다. 처음에 소개한 대학원생의 당혹스러움은 필자 역시 이미 경험한 것이지만 현재의 교육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당혹스럽다. 